

지역 소식통

김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비대면 상담 운영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청소년들에 대한 감염병 불안감 해소 등 심리적 안정 지원에 나섰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관 중이나, 합틀고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방역을 위해 전화(청소년 전화 1388)와 SNS,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조종보건진료소
마스크제작·배부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코로나19 예방교육을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과 조종보건진료소 소장(양경숙)은 직접 면마스크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5부제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좋아지는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면마스크 제작에 나선 것이다. 김제시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는 주말에 의료취약지역에 권역별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윤주현)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322억 원보다 718억 원(8.63%) 증액된 9,04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대응

박준배 김제시장, "감염병 조기 종식·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다 할것" 다짐

박준배 김제시장은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와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다면서, ▲ 대구광역시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구호품 전달 ▲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증환자와 의료진 간식 지원

▲ 취약계층 성금 기탁 ▲ 면 마스크 제작 재능기부 ▲ 민간합동 자율방역단 운영 등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감염병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 위축, 소비부진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 코로나19 대응 228억 원 규모 추경예산 긴급 편성 ▲ 김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운영 ▲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 지원 ▲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확대 ▲ 기업경영안정자금 확대 ▲ 시청 구내식당 휴무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 정책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빨리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권 주요도로변 소독, 다중집합시설 방역, 생활치료센터 주변 집중소독 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과도한 불안감과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 다중밀집 장소 피하기, 2m 안전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잠시 멈췄던 경제활동 정상화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불법행위 관련자 검찰 고발

군의회 폐기물매립장 조사특위, 불법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해 환경오염 야기한 보은과 고화토 처리업체·이전 개입 관련자·관계 공무원 대상... 위법·부당한 사항 확인

완주군의회(의장 최동원)가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시설을 운영한 (주)보은과 고화토 처리업체, 이전에 개입한 관련자들,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은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완주군 집행부 계획 메뉴얼인 매립지 하단부 토지를 매입해 침출수 관련 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우기에 대비, 매립도 전체를 덮개로 포장하는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조사특위) 의원 9명은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2019년 7월 18일 완주군의회 조사특위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16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완주군이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하고 보은매립장을 관리·감독

한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했고, (유)보은이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특위는 "완주군 집행부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후속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개선 요구된 사항 중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행부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일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하라"고 주문했다.

서남용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특위는 법적 자문을 받아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6일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유)보은의 제안대로 2013년 비봉면 보은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고화토처리물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유)보은이 하수오니 등이 섞인 폐기물인 고화토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결과 고화토처리물 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폐놀과 비소, 구리 등이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되고,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렸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24일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나라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지정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24일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란 단체 구성원 모두가 환자와 가족의 따뜻한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단체, 학교, 대학 등을 말한다.

김제제일사회복지관(관장 권경오)은 구성원 모두가 치매 파트너가 되

어 치매 극복과 치매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응원하는 김제시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정명자 치매 재활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김제시 만들기에 다양한 사회 주체가 동참해주길 바라며,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부정적인 치매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유흥시설 운영중단 권고·합동 현장점검

"운영 중단이 권고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완주군이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이틀째인 23일 밤 8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 소비자감시원 등 3개 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이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시설을 방문해 '운영제한 행정조치 사항'을 전달하며 15일 간의 운영중단 권고에 나섰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직원 6명을 포함한 완주경찰서 직원 3명, 소비자감시원 6명 등 총 15명은 이날 3개 반으로 나눠 삼례읍과 봉동읍, 이서면 등 3개 읍·면 46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준수 사항 이행 의무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안내문과 손소독제·마

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방역소독 상황도 점검했다.

유흥시설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권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유흥시설 외에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정부의 운영제한 조치 대상이다.

완주군은 이날 유흥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서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